對北지원은 핵 폐기 시간표 따라

초기조치 이행에 남북대화 맞춰

北-美 급속 접근속 경협위 주목

■ 2·13 합의 한달

베이징(北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2·13합의'가 나온 날, 한반도의 허리인 판문점에서도 정세 변화를 알리는 또 다른 합의가 이뤄졌다.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대표접촉을 갖자는 우리측의 전날 제의에 북측이 선뜻 응해온 것이다. 절묘한 타이밍에 대화 제의와 합의가 이뤄지면서 7개월 만의 남북대화 복원을 알린 순간이었다.

이어 2월 15일 개성에서 열린 대표접촉을 징검다리 삼아 남북은 2월 27일부터 3월2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20차 장관급회담에서 2·13합의의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한 6개항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적 진전을 강화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참여정부 평화번영정책의 '두 팔'이 돼왔던 6자회담과 남북회담의 동시 가동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이면을 보면 정책집행 현장에서 작년 말부터 감지되던 변화의 기류가 이젠 확연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나온다.

그 변화의 양상은 '병행정책'의 본질적 변화라기 보다는 병행의 틀인 6자회담과 남북회담 가운데 정부가 두는 무게 중심이 한 쪽에 치우치고 우선점이나 선후가 뚜렷해진 것으로 요약된다. 물론 확실히 무게가 더 실리고 우선점이 된 곳은 6자회담이다.

일각에선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이뤄진 방법론의 미세 조정에 그치지 않고 기조 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해석의 근거로는 장관급회담에서 잡은 남북대화 일정이 2·13합의가 담은 초기 조치의 이행 시한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 우선 거론된다.

실제로 대북 쌀 차관과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논의할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4.18~21)가 북측의 3월 개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변 핵시설의 폐쇄·봉인 시한인 60일이 만료되는 4월 14일 이후로 잡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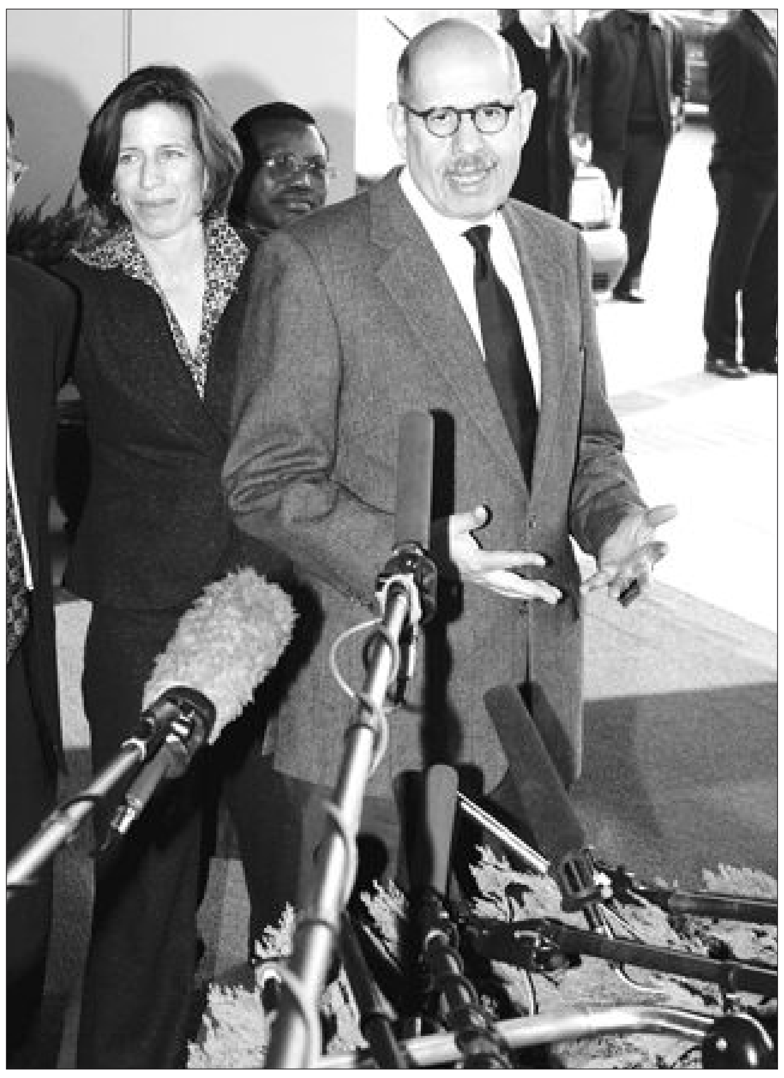
여기에는 쌀이나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의 초기 조치 이행을 유도하는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우리측 계산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연초부터 국내 정국을 달구는 소재가 됐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당위성 측면에서 오히려 6자회담의 뒷전으로 밀려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국내적으로 새로운 논란을 낳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좋게 보면 남북관계가 2·13합의 이행의 추동력이나 촉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북회담이 6자회담에 종속됐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향후 남북관계 전망도 쉽지만은 않게 만들고 있다.

남북관계가 6자회담의 진전을 추동하면서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많지만 2·13합의의 이행이 삐끗할 경우 바로 남북관계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주목할 대목은 경협위다.

14~15일 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남북접촉과 4월 10일에는 적십자회담이 잡혀 있지만 경협위에는 북한의 최대 관심사이자 2·13합의 이행 여부와도 맞물린 모양새인 쌀과 경공업 원자재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한스 블릭스 전 사무총장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13일부터 이틀간 평양을 방문하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2일 베이징 서우두(首都)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북에 대한 기대를 밝히고 있다. /AP=연합뉴스

"한국여성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마스타카드, 亞太 13개국 조사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마스타카드 월드와이드는 12일 아시아·태평양지역 13개국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조사한 결과 한국여성의 노동참가율 지수와 관리직 진출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의 노동참가율 지수는 2006년 72.93에서 올해 73.08로, 관리직 진출비율 지수도 2006년 32.68에서 52.75로 높아졌으며 대학교육 지수는 75.58에서 76.75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평균이상 소득 지수는 78.90에서 67.87로 낮아졌다.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종합 지수에서는 2007년 65.12로 2005년 45.44, 2006년 65.02에 이어 상승세를 보였다.

조사대상 국가 여성의 사회경제적 평균 수준은 72.09로 2006년 76.11보다 소폭 낮아졌으며 특히 관리직 진출비율이 2006년 70.68에서 올해 조사에서는 56.23으로 크게 낮아졌다.

종합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로 89.85를 기록했으며 이어 필리핀 87.43, 대만 82.19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46.93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았으며 중국은 75.59로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합뉴스

"고도성장이 한국인 자살 내몬다"

LA타임스 "극심한 경쟁이 불안 야기" 10년새 2배 증가

"경제 성장을 향해 줄달음쳐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지만 정신.문화적 변화는 이루지 못한 채 또다른 난관에 부닥치자 자살이라는 쉬운 길을 택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인근 어바인에 있는 '뉴아메리카재단'의 그레고리 로드리게스 수석연구원은 11일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기고한 '성공이 한국인을 죽이고 있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한국 사회에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의 원인을 이렇게 짚었다.

로드리게스 연구원은 지난 한해 동안 LA의 한인사회에서 자녀 등 가족들을 살해하고 자살을 택한 사례가 3건이나 발생하고 올 들어서도 30대의 한 가정주부가 이를 따르려다 실패한 사례가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하나같이 경제난, 이민 적응 어려움을 원인이라고 지적하지만 진정한 해답은 이곳에서 6천마일 떨어진 한국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전제하며 자살의 근본적 이유를 풀어나갔다.

그는 역사상 두드러진 경제발전과 사회변혁을 통해 1960년대 농경사회에서 1990년대 고도의 도시산업화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룬 성공이 한국인들을 결국 죽음으로 몰고가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1995년 10만명당 11.8명이던 것이 2005년 26.1명으로 증가하는 등 지난 10년간 자살이 거의 2배로 증가한 것에 주목한다.

올 들어 2월까지 정다빈과 유니의 자살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자살은 20대의 사망 원인중 1위이며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높아 전체 사망원인중 4번째나 되는가 하면 2005년에는 400여명의 학생들이 경쟁적인 교육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친구들의 죽음을 경계하는 철야기도를 갖기도 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IAEA 사찰단 北 복귀 희망"

엘바라데이 사무총장

북한 방문길에 중국에 도착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12일 IAEA 사찰단이 북한에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이날 베이징 서우두(首都)국제공항에서 "6자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사찰단이 제때 복귀할 수 있도록 북한과 합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IAEA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실행방식을 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IAEA의 완전한 회원국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북한이 '2·13 합의'에 따라 60일 안에 IAEA 사찰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스 블릭스 전 사무총장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13일부터 이틀간 평양을 방문한다.

그는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과 핵시설 동결 및 핵폐기를 검증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다시 베이징에 들러 중국 당국자들과도 협의할 예정이다. /베이징=연합뉴스

나오미 캠벨·크리스천 베일 '세계 최고의 몸짱'

〈나오미 캠벨〉

여성과 남성의 이상적인 몸매는?

흔히 가슴, 허리, 엉덩이 치수를 여성의 몸매를 판단하는 수치로 여겨왔지만 넓적다리 둘레와 종아리 두께가 여성의 몸매를 판단하는 데 더 중요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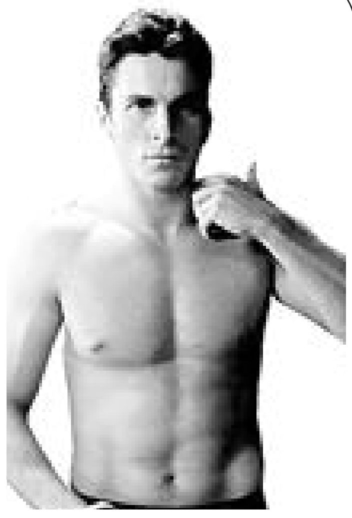
폴란드 그단스크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미인대회 최종후보에 오른 24명과 일반 여성 115명의 가슴, 허리, 엉덩이 치수 등을 분석한 결과 미인대회 후보들은 일반 여성들에 비해 키와 넓적다리의 비율이 12% 더 낮아 상대적으로 호리호리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키는 5피트 9인치(약 1m74cm)였으며 허리가 가슴의 76%, 엉덩이의 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에 꼭 들어맞는 이상적인 몸매를 가진 여성은 다름 아닌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

남성의 경우 매력적인 몸매를 판단하는 중요한 수치는 키와 체질량지수(BMI), 허리와 엉덩이 비율, 허리와 가슴 비율.

이상적인 남성의 몸매는 키가 6피트(약 1m82cm)가 넘고 상체와 다리의 길이가 같다고 연구진은 말했다. 상체와 다리의 1대1 비율은 더 근육질로 보이게 한다는 것.

이러한 기준에 맞는 가장 완벽한 몸매의 남성은 영국 영화배우 크리스천 베일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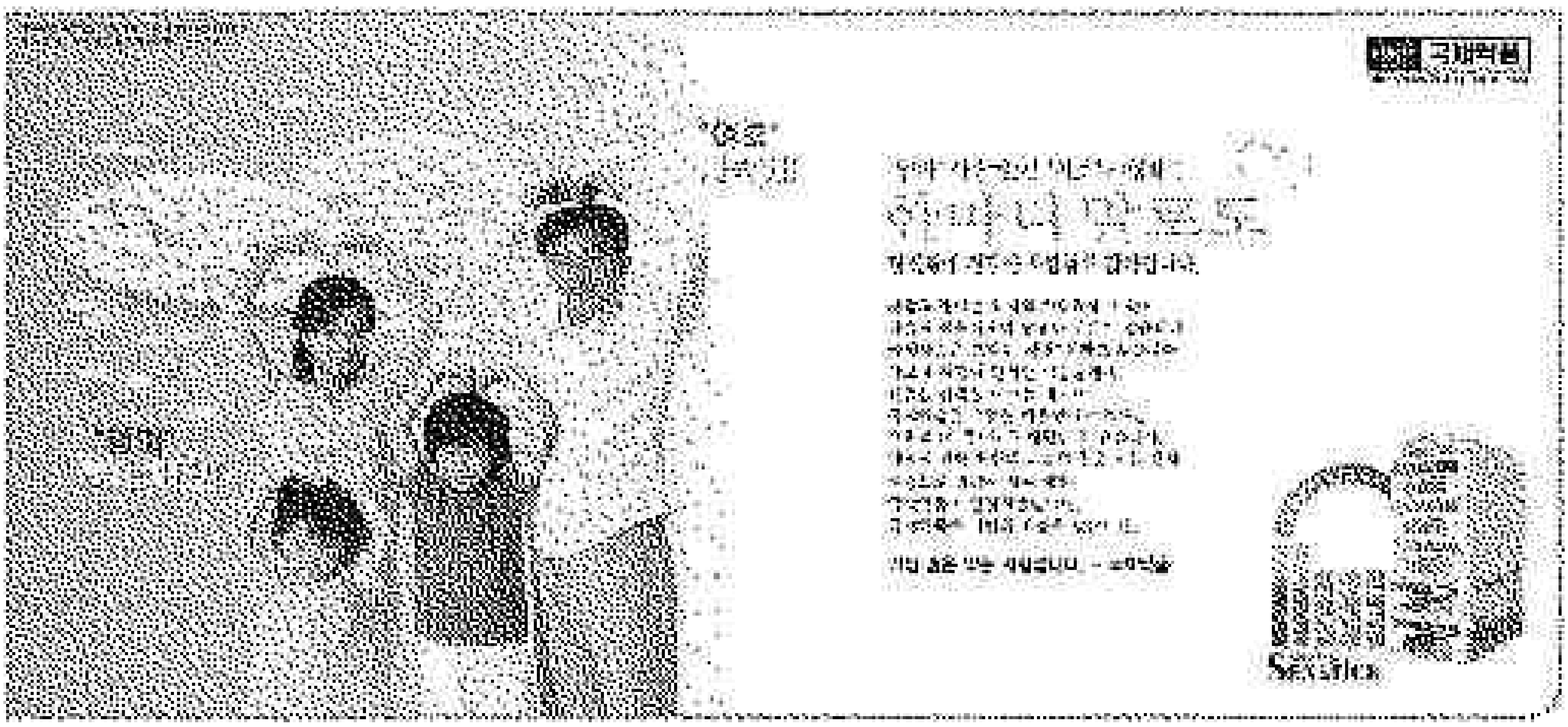


〈크리스천 베일〉

초콜릿, 암·치매·뇌졸중 예방에 효능

美 하버드의대 연구팀

초콜릿에 소량 함유된 특정 화학물질이 치매와 뇌졸중 등 현대인이 많이 걸리는 질병을 두루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11일 전했다.

미국 하버드의대 노만 홀렌버그 교수는, 코코아를 많이 먹는 파나마 쿠나 종족이 그렇지 않은 본토 종족들에 비해 고혈압을 앓는 비율이 매우 적으며 암이나 심장질환, 뇌졸중 발병률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는 초콜릿 회사의 자금을 일부 지원받은 것인데다, 홀렌버그 교수의 핵심 주장에도 논란 소지가 있는 것이어서 학계의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연합뉴스